

# 농업에 관련된 우수학회 소개

▶▶ 힘을 모아 더 큰 힘을 만듭시다



□ 한국고려인삼연구회 (이충열 총무이사 : Tel 055-350-5503)

강 광 희 한국고려인삼연구회 회장

글로벌 자유무역체제에서 우리농업은 외국의 농산물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 있습니다. 더구나 식량인 쌀 생산까지 조정국면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면 우리의 농업생산 전체가 각각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. 더구나 우리의 농산물 경쟁력은 이웃한 중국의 생산규모나 가격 면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수한 고급의 명품으로 신뢰성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그 가치는 인정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. 국제시장에서 우리 고려인삼(원형삼)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장 점유율은 위축하였어도 아직 탁월한 고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

고품질의 고려인삼의 상품은 우수한 수삼을 생산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, 그것은 인삼을 재배하는 삼농인의 몫(역할)입니다. 그런데 수삼재배는 적어도 4~6년에 걸친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므로 정부는 인삼농가에게 우수한 수삼 생산을 유도하는 더 적극적인 인삼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 농림부는 금년부터 더욱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하고 유통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. 우선 고품질의 인삼은 우선 유해한 잔류성분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사



용가능 농약과 그 잔류수준을 제시해야 합니다. 또 정부는 외국삼이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품이 시장에서 확보할 수 없도록 차별해서 소비자가 안전한 상품을 구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. 또 정책 당국자는 인삼농가의 재배기술 수준 더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과 우수농가의 경험 기술을 개발하여 전체 인삼농가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류나 교육의 장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.

인삼은 한해살이 작물과 달리 4~6년간 인삼뿌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발육을 해마다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. 또 인삼식물은 다년생인 과수와 달리 미기상 환경에 민감한 작물이므로 그 식물이 잘 자랄수 있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시설(삼집)에서 재배하므로 식물의 성질을 이해하여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삼은 토양의 성질이나 양분의 함량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는데, 심고 나서 재배기간 중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. 지금도 인삼을 심을 예정지는 1~2년 특별하게 관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.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 정밀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경험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면 우리 선조의 지혜는 참으로 자랑할 만 합니다. 더구나 수삼으로 홍삼을 만드는 가공기술은 저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성분의 변화를 유도하여 고려인삼의 품위를 한층 더 향상하는 우리 선조의 고유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한국고려인삼연구회는 고려인삼의 명성을 지키는 것에 힘써 국내 인삼생산능력을 배양하고 우리 인삼산업을 발전시키는 삼농인 공동체 모임입니다.

.....  
**• 한국고려인삼연구회 임원진**

회장 : 강광희 / 부회장 : 성낙술 / 총무이사 : 이충렬(밀양대 교수)

**• 「한국고려인삼연구회지」(연4회 발간) 편집위원**

최재울, 성낙술, 이충렬, 김현호, 성봉재, 이성우, 김영창